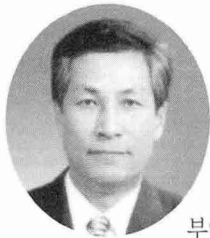


작은 주님을 만나면서

유 기 호 · 요셉
성가복지병원



작은 호스피스 봉사생활 중에서 정 엘리사벳 자매님이 생각납니다.

엘리사벳 자매님은 자궁경부암 말기였으며 직장까지 전이가 되어 인공항문으로 배변을 받아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매님을 처음 만난 것은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한지 3년쯤 되었을 때였으며, 자매님은 간호사의 말대로 아주 깔끔한 성향을 지니셨고 자존심이 아주 많이 강하셔서 매우 힘든 상태인데도 배뇨처리를 혼자 하고 계셨고 매사에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팀원 모두가 자매님께 다가서기를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날도 혼자 계신 병실을 들어서니 몹시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환자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인사를 드렸는데도 응답이 전혀 없으셨으며, 이와같은 상황의 반복은 저를 포함한 모든 봉사자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을 들어섰는데 악취와 함께 평소 때보다 더 많이 힘들어하시며 안절부절 하시면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상태가 많이 나빠졌음을 직감하고 얼른 가까이 다가가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니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얼마나 기다리던 말이었던가! 이때다 싶어 얼마 전 중환자실에서 봉사하던 경험까지 살려가며 냄새나는 악취도 못 느끼면서 소독수와 거즈, 일회용장갑, 형겔 등을 준비해 환부 주변을 소독하고, 배변과 배뇨도 처리하고, 배변 주머니도 교체해드리고

깨끗이 닦아드리고 주변도 청결하게 정리정돈을 해드리고 나니 안정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 기회를 놓칠세라 젖은 환의도 갈아입혀 드린 후 “이젠 괜찮으시죠?” 하고 말씀드리니, 그제 서야 ‘감사합니다’ 라고 말문을 여시면서 처음으로 인사도 나누고 통성명도 하게 되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벽이 일시에 허물어지는 순간이었고,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매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은총의 만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자매님과 의 만남 안에서 그동안 자매님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제 뜻대로 기도와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고,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무엇을 서둘러 얻고자 하거나, 환자의 뜻이 아닌 제 자신의 일방적인 의지와 판단에 따라 처신했던 부족한 나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고, 호스피스 봉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힘든 것마저도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난 후 선종하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아름다워, 천국으로 가신 듯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참된 호스피스 봉사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몸과 마음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낮고, 작고, 겸손된 삶을 살아야 됨을 다짐해 봅니다.